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지난달 29일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는 찬성 138, 반대 9, 기권 41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비회원 참관 '단체(Entity)'에서 참관 '국가(State)'로 승격되었다.

팔레스타인은 작년에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 그렇지만 안보리 동의를 필요 없는 유엔 산하 유네스코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정회원국에 가입하는 데 성공했다.

팔레스타인은 이번에도 안보리 동의를 필요 없는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승인을 요청해 3분의 2선을 훨씬 넘는 나라들이 찬표를 던졌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호소대로 "팔레스타인 국가에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캐나다 등이 반대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일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가자지구 봉쇄와 폭격으로 프랑스 등 기권을 행사해온 나라들이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기권했다.

2007년 이스라엘에 의해 봉쇄된 팔레

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2008년 12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천 400여명이 죽었고, 지난 11월 14일에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린이와 여성 등 46명이 죽고 400여 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팔레스타인의 눈물과 희망

심지어 이번에 이스라엘군은 트위터를 통해 가자지구 집결장인 하마스의 군 최고지도자 아흐메드 알 자바리의 표적암살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폭격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유튜브에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전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의 날'을 맞아 기독교회관에서 기독교계 단체들과 함께 한국 그리스도인 평화기도회를 갖고 이스라엘로부터 군사적 공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기원했다. 김영주 총무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차별과 인권유린에 눈감고 있었음을 회

개한다"면서 "전 세계 팔레스타인인 연대의 날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많은 한국의 작가들과 시민단체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과 눈물을 공감과 연대를 표시한 바 있다. 1980년대 초부터 팔레스타인 작가들의 시와 소설이 번역 소개되었고, 오수연 작가는 직접 팔레스타인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르포를 보내왔다. 계간 '아시아'는 2010년 여름호에서 특집으로 팔레스타인 작가들을 집중 조별했다.

“우리는 ‘희망’이라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해방과 독립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웅도, 희생양도 아닌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는 바람, 자신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임산부가 군 검문소 앞에서 죽은 아기를 낳지 않고 병원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낳으라는 바람... 이 땅이 '사랑과 평화의 땅'이라는 원래의 이름을 되찾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우리와 더불어 이 '희망'이라는 짐을 나누어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저명한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시가 국제작가회의 대표단을 맞이하는 환영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또 '희망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

했다. "나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알제리아의 진땀장수나 되어/ 혁명가들과 어울렸으면/ 나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예멘의 목동이나 되어/ 부활을 노래했으면/ 나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말라/ 하바나의 급사나 되어/ 억압받는 사람들의 승리나 기원했으면/ 나에게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아스완 댐의 짧은 수문장이나 되어/ 바위를 위해 노래했으면/ 나의 친구여/ 내일 강은 불가강으로 흐르지는 않네/ 콩고강이나 요단강이 유프라테스강으로 흐르는 것도 아닐세/ 모든 강은 그 자신의 시원(始原)이 따로 있고/ 제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제 삶이 따로 있지/ 우리의 조국은 친구여, 황폐한 나라가 아니라네/ 때가 되면 모든 나라는 새로 태어나고/ 모든 전사는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니."

개인의 품격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품격도 부당하게 고통받는 약자에게 동정과 공감을 보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 평화공존의 희망을 북돋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이번 팔레스타인 표결은 보여주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팔레스타인은 독립국가가 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웃과 평화롭게 공존할 권리가 있다"는 단순한 원칙을 근거로 한국도 찬성의 한 표를 던질 수는 없었는지 안타개를 따돌린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가 관건이다

지난 1일 전면 실시에 들어간 광주시의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걸리고 있다.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 부족과 시민 관심 결여에 따라 참여도가 10%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본사 취재진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 상무로·월산동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종량제 참여를 위해 스티커를 붙인 용기를 내놓은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기존 정액제 스티커가 붙은 용기를 내놓은 지역이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였다. 담당 공무원들은 "많은 단독주택 주민들이 종량제를 전혀 몰라 계도용 스티커를 붙이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종식 서구청장이 현장을 돌러 본 명지아파트 일대는 참여율이 90%에 달할 정도였다고 한다. 시장과 구청장이 순시하는 곳에 대해서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야말로 전 시행정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능화되는 학교폭력, 걸도는 척결의지

학교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 학생이 100명 이상인 중학교만 11곳에 달한다니 정부와 경찰, 교육당국의 척결 의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8~10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부터 고교 3학년까지 37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수 100명 이상인 중학교가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곳은 공립이라고 한다. 전남지역도 피해 응답 인원이 많은 중학교 상위 10곳 중 9곳은 공립이었다.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교육당국의 소극적 대응과 폭력 유형이 모욕과 따돌림 등으로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시내 일선학교의 올해 1학기 정규수업에 편성된 학교폭력 예방교육만 하더라도 학교당 평균 22.9시간에 불과했다.

이제는 전국 광역시 중에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평균 26.8시간보다 낮은 것이다. 전남지역은 11.3시간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10.2시간) 다음으로 낮았다.

여기에, 학교폭력 피해 유형이 과거 폭행과 감금, 갈취, 협박 등에서 최근에는 지도·단속이 강화되자 욕설, 놀림, 따돌림 등으로 지능화 추세에 있다. '간접폭력'으로 변질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고 있다. 학생들이 부모나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117 센터를 찾는 것도 이런 이유다.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예방교육을 강화하되, 이제는 간접폭력에 우선선을 두어야 한다. 또 117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내실화해야 하고 교사, 학부모 역시 학생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네팔에서 온 편지 (30)



박행순

네팔에 거주하는 700여명의 교민중 약 90%가 수도인 카트만두에 살고 있다. 카트만두에 사는 교민 몇이 4박5일간 서부지역에 자리 잡은 한인 선교사들을 방문하려 하는데 나도 합류하였다. 그 중 한 분은 네팔의 총 75 '질라'(군 단위 행정구역) 가운데 74 질라를 자전거, 오토바이, 버스로 여행한 특별한 분으로 우리 여행길에 안내 역할을 톡톡히 했다.

11월 5일, 오전 6시 반에 카트만두를 출발하여 점심때에 '나라안가드'의 소망의 집(House of Hope)에 도착했다. 20년 전에 온 이해덕 선교사 부부와 자원봉사자들이 40여 명의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지난 10여 년의 내전으로 생긴 고아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미래의 소망을 키워주고 있었다.

네팔 서부 여행

네팔은 전 네팔이 개방되자마자 다국적 기독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 온 곳으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환자들을 돌보고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11월 7일, 오늘은 '네팔간조'(네팔 땅이라는 뜻)에 들렀다. 이처럼 네팔 영토임을 확실하게 하는 지명을 의식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일본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하기위해 독도를 '한국섬'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11월 8일, '탄센'에 가는 길에 '부두알'에 있는 코이카에서 지원한 Korea-Nepal 기술학교를 방문하였다. 네팔 청년들에게 전기, 자동차, 기계 등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교육이 목표라고 한다. 탄센병원에서 지난 5년간 외과의로 일했던 김동욱 선교사는 임기를 마치고 한 달 전 한국으로 돌아왔다. 병원 입구에 새겨진 "We serve, Jesus heals!"라는 문구가 이곳이 선교병원을 통해 전한 생명의 사랑임을 상징하고 있다. 대략 50여 년간 선교병원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의료선교사들이 네팔인들을 위

해 일했지만 지금은 정부로 넘어갔고 십여년 사이에 기독교의 흔적들은 거의 사라졌다.

오후 7시경에 '포카라'에 도착하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나푸르나 고평들이 아주 가까이 보이는 유명한 관광지이다. 때로 한국인들이 단합에 약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다섯 가정의 '단일연합체'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 한국어 학원을 세워서 네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근로자로 보내기도 하고 아자도 왕이 있는 집안 무스탕 지역에 다니며 음악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네팔의 젊은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11월 9일,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날이다. 카트만두로 돌아오는 도중 '끼이날리'의 음습나환자 공동체를 방문하였다. 영화 '벤허'의 나환자 거처와 너무도 흡사한 곳을 지나서 마당에 들어서니 45년을 이 땅에서 살았다는 70대의 초라한 독일 여선교사가 우리를 맞이한다. 차를 마시고 떠날 시간, 사진을 찍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가슴이 찡해지면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이 벽안의 독신 여성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가장 밑바닥에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녀의 편안한 미소가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파티대의 객원교수·전남대 명예교수>

기고

'사회적 기업'으로 나눔가치 실현



송광운

'일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다. 더욱이 국내의 경제가 위축되면서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또 '복지'와 '사회 안전망'의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비중 또한 매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기업은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이고 점차 그 영역을 넓히며 소의

계층의 경제적 안전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 짚어보자.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 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장기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자, 새터민(탈북자) 같은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 재활용(recycling)을 통한 친환경 실천에 앞장섰고 있다.

광주 북구에도 이 같은 (예비)사회적 기업이 25곳 있다. 이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무료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제공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사업

을 시행 중이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발판 삼아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이는 북구가 민선 5기 구정목표로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 사는 북구'로 정하고 '공생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또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 사는 북구'라는 구정 목표는 북구인 45만 명 중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비율이 31.5%~36.3%에 이른 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구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경제·복지·사회 등을 아우르는 삶의 질과 가치 향상을

통해 구민이 풍요롭고 살맛나는 북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다.

북구는 사회적 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을 돕기 위해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 '우수제품 공동 판매장 구축',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기관·단체, 소비자가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야 한다. 이에 앞서 사회적 기업은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우수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사회적 기업, 시민·기관 단체 등 소비자, 정부·지자체 등이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룬다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자신한다. <광주시 북구청장>

수입쌀 쓴 막걸리 생산업체 제 잇속만 챙겨서야

막걸리가 많이 알려지고 수출도 큰 호황이라고 들었다. 그렇기때로 막걸리가 우수한 술로 자리를 잡고 팔리며 세계적인 술로 이름값을 올려 우리 쌀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보니 일이 엉뚱하게 흘러갔다. 즉 막걸리 생산 업체들이 막걸리의 우수성과 이름값만 이용해 우리 쌀을 사

용하지 않고 수입쌀로 만들어 제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농산물유통공사가 조사해 보니 막걸리 세계화를 위해 막걸리 수출업체에 지원하자는 수출물류비 중 80%가 수입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솔직히 배신감을 느꼈다.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쌀 경작자를 줄이고 있는 판국이다. 쌀로 밥을 짓는 일 말고도 쌀 과거, 쌀 라면, 쌀 빵류 등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여 나가자고 다함께 매진하는 판국에 막걸리는 제조업체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국민과 농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늘어나는 쌀 재고를 줄여보고자 정부까지 나서서 쌀 가공사업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가며 어떻게 하면 국내 쌀 농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요즘이다. 그런 상황에서 수입쌀을 원료로 사용할 수 출용 막걸리에 국민의 세금도 지원하는 것

은 결코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수입쌀로 막걸리를 만드는 제조업자 또한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촌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부의 취지나 국민적 감정을 감안해서라도 수입쌀을 원료로 한 막걸리 생산을 자제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주시한 쌀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농촌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당연히 국산 쌀을 이용하는 업체위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대용·여천시 평려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조사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